

세월호 인양 임박...분주해진 '목포신항'

2만3100t 인양 가능한 재킹바지선 중국 출발 작업에 10일 소요...미수습자 가족 거처 옮기기로

이동식 주택(컨테이너)에서 지난 3년간 세월호 인양을 기다려오던 권오복씨 등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거처를 조만간 목포 신항으로 옮긴다. 맹골수로 인근 바다 아래 가라앉은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인양하는데 도움을 줄 재킹바지선과 반잠수식 선박도 조만간 중국을 출발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늦었지만 지난 2014년 4월 16일 가라앉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을 둘러싼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반기는 모습이다.

6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4월께 목포신항에 이동식 주택 40동을 건립한다. 팽목항에서 세월호 인양을 기다리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거처 10개동과 정부, 민간조사단 등이 머무를 공간이다. 정부와 인양업체는 올 4~6월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옮겨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작업도 순조롭다고 밝히고 있다. 세월호 인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미수습자 가족들은 목포

신항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 있던 이동식 주택, 분향소 등은 모두 철거된다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전했다.

인양 작업에 동원되는 선박을 감안하면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인양력이 2만3100t에 달하는 재킹바지선 한 척이 중국에서 출발, 세월호 침몰해역에 6일 도착했고 나머지 한 척도 이날 중국에서 출발했다.

재킹바지선은 바람의 영향에 덜 받고 자체적으로 탑재한 유압잭의 힘으로 와이어나 리프팅 빔을 연결해 세월호를 줄다리기하듯이 끌어올려 선체가 13m위로 드러날 때 까지 진행된다. 바닥을 차고 올라선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에 의해 87km 가량 떨어진 목포 신항으로 운송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월 중순부터 6월까지의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작아지는 소조기가 8번이 있다. 여러 상황이 순조롭게 맞아떨어질 경우 10일이면 인양도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목포시민단체들도 바빠졌다. 인양에 맞춰 세월호 추모객을 맞이하고 진도에서 거

쳐를 옮겨올 미수습자 가족들을 돌보아한다는 의무감에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YMCA, YWCA, 민노총, 정의당, 전교조 목포지부, 목포작가회의 등 목포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며 지난 4일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 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회의의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미수습자 가족, 정부 쪽 말을 두루 들어보니 세월호 인양이 임박했다는 것을 목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게 됐다"면서 "거처를 진도에서 목포로 옮기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희생자 가족들, 전국에서 오시는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추모와 진실 규명이 모두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대, 세월호 진실규명 힘 보탠다

동아리 주최 다음달 3~16일 캠페인...행사 참여 학생 모집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전남대 한 동아리가 '4·16 약속 지킴이'를 모집한다.

전남대학교 대학생 진보정치경제연구회 '소셜메이커'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지나 어느새 3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4·16 약속 지킴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4·16 약속 지킴이'는 4월 3일부터 16일까지 대학 내에서 노란리본 나눔 활동과

관련 전시회 등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군순(경영학과 3년) 소셜메이커 대표는 "4월 한 달간이라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취지에서 4·16 약속 지킴이를 모집하게 됐다"며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도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는 세월호와 9명의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재기자 ej6621@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5 해질녘 13:15
해질녘 18:33 날짐 02:40

따뜻하게 입으세요

눈이 그친 후 길이 얼어 미끄러운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주눈/비온뒤	-2/5	보성	눈온뒤	-4/6
목포	포눈/비온뒤	0/4	순천	눈/비온뒤	-2/6
여수	눈온뒤	0/7	영광	눈온뒤	-3/4
나주	눈온뒤	-4/5	진도	눈/비온뒤	1/4
완도	눈/비온뒤	0/6	전주	눈온뒤	-1/3
구례	눈온뒤	-4/4	군산	눈온뒤	-1/3
강진	눈/비온뒤	-3/6	남원	눈온뒤	-3/3
해남	눈/비온뒤	-3/5	축산도	구름맑음	1/5
장성	눈온뒤	-3/4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생활지수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낮음	☀
피부질환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43	09:26	15:03	21:39
여수	11:03	04:38	23:18	17:12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	☀	☀	☁	☀	☀	☀
-4/6	-1/11	0/12	0/15	2/15	2/15	3/14

광주고려인마을 기념사업위 출범

강제이주 80주년 사업 추진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식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나눈다고 6일 밝혔다.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종교계 및 시민사회 단체 등 50여개 단체와 유망한 광주시장, 장항국 광주교육감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감사예배와 출범식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일제강점기 조국광복을 위

해 헌신한 고려인 선조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축사, 인사말, 최근 시집을 출간한 전 타슈켄트대 러시아문화학과 교수인 김블라디미르 시인의 축사, 소망풍선 날리기 등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출범 이후 학술포럼, 문화행사, 고려인영화제, 사진전, 음식체험은 물론 특화거리 활성화를 통한 조상의 땅 생존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다시 국권이 유린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손에게 잃어버린 역사를 일깨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서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점검

광주시 서구는 개학을 맞아 7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주변과 학원가 문방구, 분식점 등 246개소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커피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튀김 기름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산가 측정용 병행 해 신선한 기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선다. /김형호기자 khh@

화재 막은 6살 어린이 표창

광주남부소방서

차분하고 정확한 대처로 아파트 대형화재를 막은 어린이에게 소방 당국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광주 남부소방서는 6일 광주 남구 양림동에 사는 이하은(6·여) 양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남부소방서는 이 양이 어린이집에서 소방교육을 받은 대로 초기 대처를 해 아파트 화재피해를 최소화한 공을 높이 평가했다.

이 양의 집에서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 12분께 부모가 외출한 사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집 안에 혼자 머물고 있던 이 양은 불이 나자 즉시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이 양은 어린이집에서 배운 대로 집을 나설 때 짐차하게 현관문을 닫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몸을 피했다.

현관문이 닫히면서 공기 유입이 차단돼 불은 저절로 꺼졌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으로 번지는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

이성연 광주 남부소방서장은 "이 양처럼 어린 나이에 받은 소방안전교육은 평생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함께해요"

광주시 북구와 여성단체협의회, 금광공사는 6일 북구청 광장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캠페인'을 열었다. 송광운 북구청장과 회원들이 '음식물 감량'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입영 희망 날짜 신청하세요"

병무청 내일 1차 접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8일 오후 3시부터 2018년도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사

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접수한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다음년도에 입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1~12월 중 희

망하는 달을 선택해 입영을 신청하는 제도이며,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병무청은 이날 8일 현역병 입영본인선택원 1차 접수를 하고, 6월14일과 12월1일 각각 2차, 3차 접수를 할 예정이다.

/박정호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